

# 12월 이후 종교시설 집단발생 10건 547명...연말 기폭제 될라

12월 들어 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이 10건 발생했다. 확진자 수로는 547명에 달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 사례의 위험 요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전국에서 총 10건이 발생했으며, 확진자 수는 547명이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비말(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소모임 또는 시설 내

## 비말 발생 많고 환기 불충분 '위험요인'

### "종교시설 관련자 더는 대면모임 말라"

음식 섭취,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미준수 등이 꼽혔다.

특히 15일 0시 기준 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에서는 여러 교회가 참여하는 '대면 기도회'를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에서 진행했으며, 방역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2시간 이상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했지만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조차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현재까

지 이 곳 관련 53명, 당진 복지시설 관련 6명, 서산 기도원 관련 23명, 대전 종교시설 관련 22명으로 환자가 분류된다.

B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교회 행사 준비 중 다수가 확진됐는데, 합창연습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사 후에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



종교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진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교회가 폐쇄돼 있다.

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모임도 하지 말

그는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

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단합된 대응"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람 간의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대면 행사 준비 인원도 20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

2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종교활동 시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 주관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대면모임·활동 및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도 불허한다.



광주 북구, 버스정류장에 온기텐트 설치. 광주 북구청 공직자와 자율방재단원들이 15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앞 버스승강장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바람 가림막(온기텐트)을 설치하고 있다. 북구는 온기텐트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개방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 압수수색영장 놓고 간 전남경찰...'보안의식 구멍'

### 영장 집행 뒤 회수 않고 철수...뒤늦게 돌려받아

전남경찰청이 압수수색영장을 놓고 갔다 뒤늦게 돌려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0월 지능범죄 수사대가 보합사기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집행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회수하지 않고 철수한 것과 관련, 검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죄명·압수물건, 수색의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유효기간,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능범죄수사대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수색 대상자 가족에게 제시한 영장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압수수색 대상자의 연락을 받고 영장을 회수했다.

수사·개인 정보가 담긴 영장 관리 소홀이 한 것을 두고 보안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영장)관리 부주의와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보인다.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순천 10일 만에 '코로나19' 잇따라...1명은 감염원 불명

### 2일 1명 발생후 12일 2명·14일 1명 추가

전남 순천시에서 12일과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랐다.

순천시코로나19대책본부는 15일 연합뉴스 거주 5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순천 178번(전남 481번) 환자로 분류돼 순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이 남성은 의심 증상이 10일부터 기침과 목살 증상이 나타났으며 14일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다.

순천시는 이동 경로를 파악해 9일 다녀간 여수의 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

동선 중 8일부터 14일까지 방문했던 연합뉴스의 중장비 공업사에 대한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단행한 순천은 지난 2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았다.

12일 해외 유입 1명 등 2명이 발생했으며, 14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0대 1명이 감염되면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순천시 누적 확진자는 15일 현재 총 178명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트롯 가수 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맞다' 잠정 결론

### 표절 여부 최종 결정, 이르면 오는 23일 내려질 것

조선대학교가 트롯 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15일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연구윤리원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홍진영의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학원위원회는 홍진영에게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학원위원회의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오는 23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논문 표절로 결론이 내려지면 홍진영의 석사 학위는 취소된다.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만큼,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대학원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선대는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을 근절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윤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주력키로 했다.

한편 홍진영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표절은 아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런 논란에 휘말린 제가 부족했다"고 했다. "석·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이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